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6. 4. 28.(화) 11:00

(지면) 2026. 4. 29.(수) 조간

배포 2026. 4. 28.(화) 06:00

##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한

## 민관 협력 K-물류 협의체(TF) 개최

- 국제 공급망 위기 관련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및 업계 애로사항 수렴

【관련 국정과제】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9일(수) 서울에서 주요 물류기업, 해외 물류사업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K-물류 협의체(TF)\* 및 수출입 물류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외 물류사업 투자 촉진 및 정보 공유를 위하여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2025년 2월 발족하였으며, 물류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여

호르무즈 해역 봉쇄로 인한 유가 인상과 지정학적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물류기업의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급망 최일선에 있는 물류기업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물류기업이 원활하게 해외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수출입 물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해양진흥공사가 운영하는 2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인프라 투자펀드'를 5천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진출에 필요한 타당성 분석 지원비용을 기업당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K-물류 협의체(TF)'를 통해 해외 물류정보 제공, 기업-공공기관 간 합작투자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정책과 공급망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시장동향을 공유하고, 물류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장기화로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있다.”라면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민관이 합심하여 공급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김한울 (051-773-5750)
	항만물류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길호 (051-773-5757)